

意思疎通 合理性의 限界

——하버 마스의 意思疎通行爲理論 批判——

李 輽 賢*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합리성 개념	III. 의사소통 합리성의 현실적 존재 양식과 가능성
1. 행위유형 구분	1. 해석학적 반성
2. 의사소통행위이론 I: 의사 소통 합리성의 소멸	2. 의사소통 합리성의 현실적 존재 양식
3. 의사소통행위이론 II: 의사 소통 합리성의 정당성	(1) 지배 관계내에서의 의사 소통 능력의 재구성
4. 의사소통 합리성의 실현 가능성: 절차의 합리성	(2) 지배 관계내에서의 의사 소통 합리성의 위상
5. 의사소통 합리성의 개념 비판	3. 의사소통 합리성의 현실적 가능성
	IV. 맺는말

I. 들어가는 말

베버 등 서구의 합리주의적 전통을 계승하는 하버마스의 기본적 관심은 합리적 행위와 사회합리화의 조건에 대한 탐구이다. 그는 베버 이후 철학과 사회과학의 영역에 있어 이론적 발전을 검토하면서 두가지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Thompson, 1984, pp. 279-280).

그 첫번째는 의사소통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으로서, 이는 아도르노나 호르크하이머 등 비판이론 1세대를 포함하여 이제까지의 사회비판이 머물렀던 의식철학(philosophy of consciousness)의 영역에서 언어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비판이론으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다.

그의 비판이론은 기본적으로 노동과 상호작용의 구분에서 출발한다. 그는 헤겔의 예나철학에 의거해, 맑스가 노동의 영역에 상호작용의 영역을

* 서울대 신문학과 박사과정.

환원시켰다고 비판한다(1973b, pp. 168-169). 그에 따르면 노동은 도구성(instrumentality)으로, 그리고 상호작용은 상호이해에의 지향(orientation to mutual understanding)으로 특징지워지는 것으로서 서로 환원될 수 없는 두 가지 인간행위의 영역이 된다.

이와 같은 노동과 상호작용의 구분은 그의 후기 저작으로 넘어가면서 도구적 행위와 의사소통 행위의 구분으로 재정식화된다. 의사소통에 내포된 의사소통 합리성은 도구적 행위에 내포된 도구적 합리성을 비판하는 규범적 정당성의 기반이 되며,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등 일세대 비판이론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

하버마스는 아도르노 등 일세대 비판이론의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아직도 의식철학의 영역 내에 머물게 됨으로써 무엇이 비판되어야 하고 도구적 합리성이 확대됨으로써 무엇이 과제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주지 못했으며, 따라서 도구적 합리성의 극복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본다(1984, pp. 372-390).

두번째의 전환은 도구적 이성의 비판(critique of instrumental reason)으로부터 기능주의적 이성의 비판(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으로의 전환이다. 하버마스는 사회합리화라는 관점에서 시도되는 베버의 자본주의적 근대화 분석과 루카치,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등의 분석파의 연관에 주목하면서, 베버의 사회합리화에 대한 분석은 기능주의적 이성의 분석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는 파슨즈와 루만의 체계이론을, 그들의 이론이 지니는 객관주의적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그의 비판이론에 도입한다.

이와 같은 기능주의적 합리성 비판으로의 전환은 앞의 의사소통 합리성으로의 전환에 기초하는 것이며, 의사소통 합리성에 기반한 도구적 이성의 비판은 사회비판의 틀이 된다. 하버마스에 있어 도구적 합리성과 의사소통 합리성의 대립은 사회분석의 차원에서 체계(system)와 생활세계(Lebenswelt)의 대립으로 나타나며, 체계의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colonization)라는 현대 사회의 병리를 비판하는 주요 이론틀이 된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합리성의 두 가지 측면을 그의 의사소통이론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따른 의사소통 합리성의 소멸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의사소통 합리성의 실현과 그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이 갖는 의사소통의 현실(reality)과 이상(ideal)의 두 측면을 반영하는 이와 같은 의사소통 합리성의 이원적 개념화는 그의 의사소통 이론내에서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우선 이와 같이 단절되어 나타나는 의사소통 합리성의 두가지 개념화를 우선 그의 논의를 따라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그의 이론, 특히 의사소통 합리성의 기획이 갖는 문제점을 검토한 후, 그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의사소통 합리성의 현실적 존재양식과 현실적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합리성 개념

1. 행위유형 구분

하버마스는 탈스와 베버의 인간행위 개념에 대한 비판에서 그의 의사소통 행위의 개념을 발전시킨다. 탈스와 베버 양자의 경우 인간행위를 이해하는데 공헌을 했지만, 법주적으로 서로 다른 두가지의 행위유형과 행위체계를 구분하는데 실패했으며,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행위의 합리성을 적절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들을 비판하면서 법주적으로 목적합리적 행위(purposive-rational action)와 의사소통 행위(communicative action)를,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기반하는 합리성을 구분한다.

“목적합리적 행위는 두가지의 다른 측면, 즉 기술적 수단의 경험적 효율성과 적절한 수단간의 선택의 일관성에서 이해될 수 있다. 행위와 행위체계는 이 두가지 측면에서 합리화될 수 있다. 수단의 합리성은 기술적으로 이용가능한 경험적 지식을 요구하고, 결정의 합리성은 선택행위의 올바른 추출과 가치체계의 내적 일관성을 요구한다”(1979c, p. 117). 이와 같은 목적합리적 행위 및 그 합리성은 의사소통 행위 및 그 합리성과 법주적으로 대립, 구분된다.

“의사소통 행위는 선택된 수단의 기술적 측면이나 수단선택의 전략적 측면에 의해서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주체의 책임감과 행위규범의 정당화 가능성이라는 규범적-실천적 측면에 의해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다. 목적합리적 행위의 합리화가 (경험적이나 분석적으로) 진리(true knowledge)

에 의존하는 반면, 의사소통적 행위의 합리화가능한 측면은 진술적 진리 (propositional truth)보다는 의도적 표현과 규범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찾아진다”(1979c, p. 119).

하버마스는 이와 같은 행위의 구분을 통해 목적합리적 행위는 결과지향적이며 의사소통 행위는 이해도달지향적이라고 본다. 그는 이같은 행위유형을 행위지향과 행위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984, p. 285).

〈표 1〉 행위유형의 구분

행위상황 \ 행위지향	결과지향적	이해도달지향적
비사회적	도구적 행위	—
사회적	전략적 행위	의사소통 행위

결과지향적인 행위의 행위조정은 자기중심적인 효용체산이 서로 어떻게 결합되어지느냐의 여부에 의존한다. 이와 달리 이해도달지향적 행위는 상황에 적변해 의사소통을 통해 추구된 동의 내지 합의의 조건 아래서 행위의 목표를 지향한다. 하버마스가 이와 같이 행위유형을 재구성하는 근거는 행위 조정이 의사소통행위에 있어 ‘이해도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에 있다.

2. 의사소통행위이론 I : 의사소통 합리성의 소멸

하버마스에 있어 사회의 합리화과정은, 앞서 살펴본, 의사소통 행위와 목적합리적 행위의 분리에서 출발한다. 이와 같은 사회합리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그는 생활세계 (life-world)와 체계 (system)라는 이원적 사회개념을 제시한다. 생활세계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상징적 재생산기능을 담당하며, 경제체계와 국가로서의 체계는 화폐 (money)와 권력 (power)이라는 조정매체 (steering medium)에 의해 조정되며, 생활세계의 물질적 재생산의 기능을 담당한다.

하버마스에 있어 생활세계의 합리화는 생활세계 내의 분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는 생활세계의 합리화를, 베버와 뒤르켕의 논의를 준거점으로 언어논리에 기초하여 해석한다. 언어행위 즉 의사소통 행위에 내재된 세 가지의 타당성 주장들의 합리화과정은 전통적인 세계관으로부터 학문, 법과 도덕, 예술의 분리를 초래한다. 학문, 도덕과 법, 예술은 문화적 전통의 내용으로

부터 분리되어 이론적 담론, 실천적 담론, 미학적 비판을 제도화된 문화적 행위체계로 형성하며 이와 같은 문화적 행위체계는 생활세계의 재생산 기능을 수행한다.

생활세계의 합리화는 생활세계로부터 체계의 분리를 초래한다. 하버마스는 화폐와 권력이라는 조정매체의 제도화를 통해 경제체계와 정치체계가 생활세계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본다(1985, p. 318). 체계의 분화는 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생활세계에 대해 체계가 자립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활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생활세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합리화 내지 진화과정을 체계와 생활세계와의 분리에서 파악하는 하버마스는 근대화의 병리가 이와 같은 분리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자립성을 획득한 체계가 더 나아가서 생활세계를 체계의 요구에 종속시킴으로써 야기되는 것이라고 본다. 하버마스는 근대화과정의 분석을 위한 포괄적인 가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합리화된 생활 세계는 경제나 행정과 같은 형식적으로 조직된 행위영역에 의해 분리되어 이에 종속되었다. 체계의 요구에 의한 생활세계의 병합으로 소급되어지는 이러한 종속은 물질적 재생산을 위협할 정도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적인 식민화’(inner colonization)라는 병리적 형태를 취하게 된다”(1985, p. 305).

하버마스는 이와 같은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설명하기 위해 체계와 생활세계 간의 교환관계(exchange relations) 모델을 제시한다(1985, p. 320).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체계 내부에 경제적 하부체계와 행정적 하부체계가 형성됨은 물론, 생활세계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에 대응하여 사적 영역(private sphere)과 공적 영역(public sphere)이 형성된다. 전자는 사회화를 담당하는 가족제도로, 후자는 문화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제도로 구성된다.

그러나 경제체계와 사적 영역, 행정체계와 공적 영역 간의 교환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도달이라는 행위조정의 원리가 조정매체라는 행위조정원리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사실이다. 하버마스에 있어 체계와 생활세계 사이의 교환관계는 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경제체계는 노동활동에 대해 임금을, 소비자의 수요에 대해서는 상품과 용역을 교환한다. 행정체계는 조세에 대해선 조작활동, 대중총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결정을

제공함으로써 공적 영역과 교환관계에 들어간다.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체계와 생활세계의 교환관계는 경제체계에 있어서는 고용인과 소비자의 역할에 의해서, 정치체계에서는 고객과 국가시민의 역할에 의해 규정된다.

이와 같이 체계에 의해 생활세계가 식민화됨으로써 자유로운 토론과 그것을 통한 합의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의사소통 합리성의 조정매체에 의한 대체는 공적 영역의 소멸을 초래한다. 하버마스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적 영역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추구된 합의에 의해 형성되는 민주주의적 의지는 대중충성으로 변화되어 정치지도력과 교환된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적인 의지형성이 단순히 대중충성으로만 변화되었기 때문에 시민은 실제적인 정치 결정으로부터 배제된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전제되는 공적 영역은 이제 매스 미디어라는 새로운 조직의 등장에 따라 자본과 권력이라는 조정매체에 의해 조정되는 사회의 하부체계로 기능하게 되었다. 공적 영역(*Öffentlichkeit*)의 구조변화에 의해(1989, pp. 181-195) 매스 미디어는 이제 체계의 원리에 의해 대중이 충성심을 보이도록 기능하는 이데올로기기구가 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적 영역은 현대사회에 있어 비판기능의 약화로 특징지워진다(1979a, pp. 200-201). 특정한 사회적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전환시키는 것은 공적인 사람이나 문제를 놓고 공적인 이성(public reason)에 호소하여 여론을 통해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현대에 있어 공적인 문제의 해결은 공적 영역의 체계원리에 의한 조정에 의해 특정한 이해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특히 다양한 이익집단에 의해 경쟁의 대상이 된 매스 미디어는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구로 구조가 변화되면서 이제 공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소수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구로 편입된다.

3. 의사소통행위이론Ⅱ: 의사소통 합리성의 정당성

하버마스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행위유형의 구분에서 출발하여 의사소통행위 속에 이데올로기비판의 가능성에 대해 있는지, 즉 의사소통 합리성의 정당성 기초를 밝히고자 한다. 그에 있어 이데올로기비판의 이론적 정당성을 기초지워주는 것은 언술행위론에 기초한 보편적 화용론이다(Thompson, 1982, p. 116). 그는 언술행위를 통한 의사소통 행위에 잡재적

으로 내재해 있는 타당성 주장(validity-claims)에 의한 논증(argumentation)이 이데올로기비판의 정당성 기초를 제공해 준다고 본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행위를 그것에 내재된 타당성 주장의 차원에 따라 효용성(effectiveness) 주장을 내포하는 목적론적 행위(teleological action, 이는 도구적 instrumental 행위와 전략적 strategic 행위로 다시 구분된다), 진리(truth) 주장을 내포하는 주장적 언어행위(constative speech acts, 즉 대화), 규범적 타당성(normative rightness) 주장을 내포하는 규범규제적 행위(normatively regulated action), 그리고 진솔성(sincerity) 주장을 내포하는 자기 표현적 연극적 행위(dramaturgical action)로 유형화한다(1984, pp. 328-337).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행위에 내재된 타당성 주장을 통한 언술검증의 과정을 툴민의 논증이론(theory of argumentation)에 의거해 설명한다. 그는 기존의 형식적 논리와 구분되는 툴민의 비형식적 논리(informal logic)에서 언술적 논증의 논리적 구조를 이론적 담론과 실천적 담론의 영역에 적용한다(1973a, pp. 243-245). 하버마스는 툴민의 논증이론이 갖는 유용성은 인정하지만, 논증과정에 내재해 있는 보편적인 타당성 주장(universal validity claims)과 관습적 주장(conventional claims)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1984, pp. 36-42), 각각의 의사소통행위 유형은 행위에 내재한 타당성 주장에 따라 특유한 논증형식(forms of argumentation)을 갖는다고 본다. 이에 따라 효율성과 진리주장을 내포하는 목적론적 행위와 주장적 언술행위는 이론적 담론(theoretical discourse)이라는 논증형식을, 규범적 타당성주장을 내포하는 규범규제적 행위는 실천적 담론(practical discourse)이라는 논증형식을, 그리고 진솔성 주장을 내포하는 연극적 행위는 치료적 비판 내지 미학적 비판이라는 논증형식을 갖는다고 본다(1984, p. 23, p. 334). 하버

〈표 2〉 의사소통행위유형별 논증형식과 타당성 주장의 차원

행 위 유 형	실현된 지식유형	논증형태	타당성 주장
목적론적 행위 (도구적, 전략적)	기술적, 전략적으로 유용한 지식	이론적 담론	효율성
주장적 언어행위	경험적 이론적 지식	이론적 담론	진리
규범규제적 행위	도덕적 실천적 지식	실천적 담론	규범적 타당성
연극적 행위	미학적 실천적 지식	치료적 비판 미학적 비판	진솔성

마스에 따르면, 비판가능한(criticizable) 타당성 주장은 잠재적으로 모든 의사소통행위 속에 내재되지만 담론의 영역에서 그 타당성의 문제제기와 판명이 이루어진다.

4. 의사소통 합리성의 실현 가능성 : 절차의 합리성

이와 같은 언술행위론에 기초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합리성의 분석은 의사소통 행위를 ‘표준형식’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Thompson, 1982, p. 120). 그는 언술행위가 의사소통 행위의 본질적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언술행위의 분석을 통해 추출하는 의사소통 행위의 유형은, 그가 표현하는 바와 같이, “순수한”(pure) 의사소통 행위의 유형이 된다(Habermas, 1984, p. 328; McCarthy, 1976, pp. 476-477).

하버마스는 이러한 순수한 의사소통행위 모델에 대한 비판(Heller, 1982; Thompson, 1982)을 인정하면서(1982, p. 228, pp. 235-234),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양식 이외에도 각기 문화마다 고유한 대인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의사소통 양식, 표준형식 이외의 다른 형식의 언술행위, 현재적인 언술행위 이외의 잠재적인 언술행위 형식, 직접적인 언술행위 이외의 간접적인 언술행위 형식 등 다양한 현실적 형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1984, pp. 329-330). 그러나 그는 자기가 추구하는 순수한 표준형식의 의사소통 행위의 구조가 상호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상호작용 분석의 필요조건이 된다고 주장하면서(1982, p. 228)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의사소통 형식의 분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의사소통 합리성의 현실적 가능성은 의사소통합리성의 현실적 존재 양식에 대한 탐구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합리성의 현실적 존재 형식을 탐구하지 않은채, 유토피아적인 관점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상적 대화상황’(ideal speech situation)의 창출을 제시한다. 이상적 대화상황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균형요건’(general symmetry requirements)은 다음과 같다(McCarthy, 1976, p. 484).

우선 첫째로, 모든 잠재적 참여자들은 의사소통적(communicative) 언술행위를 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짐으로써 언제든 담화를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참여자들은 주장적(constative) 언술행위를 할 수 있는, 즉 질문을 제기하고, 주장의 논거를 대거나 반박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짐으로써 결국 어떠한 의견도 고려나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 모든 참여자들은 표현적 (representative) 언술행위를 할 수 있는, 즉 자기의 태도, 감정, 의도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짐으로써 다른 이에게 자기 자신이 감춤이 없이 솔직하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째로, 모든 참여자들은 규제적 (regulative) 언술행위를 할 수 있는, 즉 명령하고, 반대하고, 허락하고, 금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짐으로써 일방적으로 한쪽이 특권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가 “경험적 제 조건들하에서의 실제적 제약들과 상관없이 대화구성적 보편요소 (dialogue constitutive universals)를 구사할 수 있는 이상적 (ideal)인 화자의 능력” (1970, p. 141)으로 정의하는 의사소통 능력 (communicative competence)은 이상적 대화상황의 창출을 위한 의사소통 참여자의 기본요건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상적 대화상황의 방안은 하버마스에 대한 주요한 비판점이 되어 왔는데 (Thompson, 1982; Heller, 1982; Ferrara, 1985; Therborn, 1971), 이에 대해 하버마스는 최근 들어 자기 이론 내에서 이상적인 대화상황의 위치는 논증을 통한 합의론적 진리론에 있다고 하고 (1982, p. 235), 또한 더이상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것이 갖는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의사소통 합리성의 기초가 되는 논증적 대화의 세 가지 측면들로서, 첫째 과정의 측면에서 모든 강제가 배제된 일반적인 균형조건, 둘째 절차상의 측면에서 협업적인 역할분업에 따르는 특정한 규칙에의 종속, 그리고 세째 산출의 측면에서 설득력있는 논증의 산출 등을 제시한다 (1984, p. 25). 이와 같은 절차상의 형식적 요건들에 대한 주장은 이상적 대화상황의 이념이 지속적으로 하버마스의 논의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합리성 개념은 ‘절차의 합리성’ (procedural rationality)으로 대체된다 (Bernstein, 1983, p. 191).

이와 같이 하버마스에 있어서는 이상적 대화상황, 또는 후기 저작에서 말하는 논증을 위한 절차상의 형식이 어떻게, 특히 체계에 의해 조정되는 의사소통의 현실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창출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명확히 주어져 있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이해해야 할 의사소통 합리성의 현실적 존재양식은 규정되지 않은채, 의사소통 합리

성의 ‘순수한’(pure) 형태만이 형식주의적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5. 의사소통 합리성의 개념 비판

하버마스가 제시하고 있는 의사소통 합리성의 기획이 제기하는 요건은 첫째로 상호이해 도달을 지향하는 상호주관적인 지향성에의 합의, 둘째 공평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이상적인 대화상황의 이념이 깔린 형식적인 절차상의 요건 타당성, 세째 의사소통과정 내에서의 논증과 합리화과정, 그리고 네째 언술검증(discursive verification)을 통한 합리적 합의의 도출로 요약될 수 있다(Hesse, 1982, pp. 100-101). 이와 같은 의사소통 합리성의 기획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현실적 가능성에 제약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점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의사소통 합리성의 현실적 존재양식과 실현 가능성에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로 하버마스는 초기의 노동과 상호작용의 구분을 도구적 행위와 의사소통 행위로 재유형화하고 있는데, 우선 그는 노동과 상호작용을 각각 도구성과 상호이해지향성으로 환원함으로써, 인간학적(anthropological)인 다원성을 지니는 행위를 일원적(monological)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eller, 1982, pp. 34-36), 나아가 의사소통 ‘행위’(action)를 상호이해의 도달을 추구하는 규범적인 언어적 과정으로 제한한다. 즉 하버마스가 의사소통 합리성의 정당성기초로 제시하고 있는 논증의 내적 논리구조(inner logic of argumentation)는 경험의 영역(realms of experiences)을 타당성 주장을 통한 형식적인 논증과정으로 환원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사소통과정은 논증이나 명시적인 언어형식 등과 같은 확정성(determinacy)의 차원과 경험, 감각구조, 동기 등과 같은 불확정성(indeterminacy)의 차원간의 끊임없는 갈등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과정으로서 (Crespi, 1987, pp. 423-424), 베버가 이념형을 추구한 것처럼 하버마스가 의사소통과정에서 언술행위의 ‘보편적인 형식적 속성’(universal formal properties)만을 추구하는 것은 의사소통 행위를 확정가능한 언어적 과정으로 환원하는 이념화 작업일 뿐이다(Giddens, 1982, p. 156).

두번째는 하버마스가 도구적 행위와 의사소통 행위의 유형화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의 규범적 기초로 제시하고 있는 ‘상호이해에의 도달 지향’(orientation to mutual understanding)에 관한 것이다. 그는 상호적인 결합은 합

리적인 기초를 지니고 있다고 보면서(1979b, p. 63), 그 요전으로서 첫째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은 누구나 의사소통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고 비판하는 데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절차상의 전제조건을 승인하여야 하며, 둘째 참여자 모두에게 의사소통의 결과가 공동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강제없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특정한 주장 내지 규범은 정당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 등이다(1990, p. 93).

그러나 이와 같은 상호이해의 지향이라는 의사소통 합리성의 개념에서는 공동의 이익이 쉽게 동의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몰라도 다양한 이익이 갈등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성을 결여하는 것이다. 특히 갈등상황에서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이 상호이해의 도달을 하나의 가치로서 인정하고 의사소통에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Heller, 1982, p. 28). 이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집단간의 갈등이 야기된 경우, 갈등의 해결을 위해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단내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갈등의 해결이라는 가치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 갈등하는 두 집단간에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가치로서 합의되어야 한다.

세번째는 두번째의 문제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의사소통 합리성과 권력관계 (power relations)에 관한 것이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권력의 문제를 합리적인 합의도출을 위해서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팔호에 넣거나 아니면 생활세계를 조정하는 체계의 조정매체로 일방적으로만 사용할 뿐, 의사소통 합리성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의 검토에서는 배제된다. 의사소통 합리성의 현실적 가능성의 모색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권력이 행사된다고 보든 아니면 권력관계에 의해 의사소통이 규정된다고 보든, 의사소통이론 내에서 권력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다. 하버마스가 가다미와의 해석학 논쟁에서 가다미의 언어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언어는 지배와 사회적 권리 (social power)의 매개체이며 조직화된 권력을 정당화시켜 주는데 기여한다”(1977, p. 360)고 주장하면서 가다미를 비판하거나, 상징적 상호작용론자인 미드에 대해서도 경제, 복지, 정치권력 투쟁 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판이 그대로 자기 자신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다(Berger, 1983, p. 198).

의사소통 합리성의 현실적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있어 권력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한, 그 이론은 현상유지만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Heller, 1982,

p. 28),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규범적 측면이 권력보다 더 강조되게 될 경우 파슨즈류의 규범적 기능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Giddens, 1982, p. 159). 의사소통 합리성과 관련하여 하버마스의 언술검증이론이 정당화와 탈정당화의 이론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에서의 사회관계를 권력관계로 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Ⅲ. 의사소통 합리성의 현실적 존재양식과 가능성

1. 해석학적 반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의사소통 합리성 개념이 지니는 형식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인 편향을 극복하고 의사소통 합리성의 현실적 존재양식을 규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과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하버마스적 질문을 지양하고 ‘실제로 의사소통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의사소통 합리성이 의사소통과정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선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은 이해의 역사성과 해석학적 반성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본고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의 한계를 규정하는 데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해를 변증법적 대화과정으로 보는 가다머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이해 개념(Heidegger, 1962, pp. 182-188)에 의거하여 이해의 역사성을 설명한다. 그는 하이데거의 이해의 전구조를 계승하여 ‘선입견’(prejudices)이란 용어로 대체하고 계몽주의 아래로 부정적인 함의만을 갖는 것으로 불신되어온 선입견을 이해의 조건으로 복권시킨다(1982, pp. 239-253). 이해의 역사성은 텍스트를 해석하는 개인의 특정한 현재지평(horizon)을 구성하는 선입견들이 전통 속에서 끊임없이 전승되고 변화되어 나간다는 인간의 역사성(historicity)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해에 있어 이와 같은 역사의 영향성을 가다머는 “영향사”(effective-history)라 부른다(1982, p. 267).

그렇다면 해석적 공간으로 등장하는 영향사는 구체적으로 텍스트와 해석자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학적 의식을 단순히 그와 같은 전통 내지 선입견에 의해 끊임없이 규정되는 수동적 위치로 전락시키는가? 가다머는 해석과정

이 단순히 전통 내지 선입견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타인의 나보다 판단이나 통찰에서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이성 자체의 작용, 즉 해석학적 반성(hermeneutical reflection)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가다머에 있어 해석은 선입견들에 의한 기투와 새로운 대항적 기투(rival project) 간의 끊임없는 과정, 즉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al circle) 과정으로서, 이 과정에서 선입견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심은 질문과 대답의 변증법적 구조를 갖는다(1982, p. 333). 해석학적 경험은 항상 이같은 개방성(openness)과 부정성(negativity)을 전제로 하는 논리적 구조를 지니며, 질문에는 항상 긍정과 부정의 반명제가 있다는 의미에서 변증법적이다.

해석학적 반성을 해석학적 순환의 원리로 한계지우는 가다머에 대해 하버마스는 가다머가 반성의 힘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이성이 전통, 선입견 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비판한다. 하버마스는 “언어놀이(language game)의 문법이 세계를 해석하는 규칙으로서 또한 행위의 규칙으로서 독단적으로(dogmatically) 주입시켜 놓은 권위의 길은 반성의 힘에 의해 소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단순히 지배(domination)에 지나지 않는 권위의 요소는 폭로되어 통찰과 합리적 결정이라는 덜 강제적인 제약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하면서(1977, p. 358), 해석학은 이제 ‘이데올로기비판’(critique of ideology)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다머는 반론을 통해 하버마스의 비판은 ‘독단적’(dogmatic)이고 자기 자신의 해석학적 반성의 개념을 일방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1976, p. 34), 이상주의적(idealistic)인 반성의 역할에 너무나 큰 기대를 부여해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McCarthy, 1978, pp. 187-188).

이와 같은 해석학 논쟁의 핵심은 반성, 즉 의사소통 합리성에 어느 정도의 힘을 부여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이해의 과정에 전통 내지 영향사의 작용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이성의 작용을 통한 변증법적 발전과정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가다머에 동의한 이해의 역사성을 그의 의사소통이론에 일관되게 적용하였어야 했다(Bernstein, 1983, p. 184, p. 196). 이제 의사소통 합리성은 이해의 역사성에 의해 한계지워지며, 의사소통 합리성의 개념이 갖는 형식주의적, 보편주의적 한계는 해석학적 통찰에 의해 지양된다.

그러나 철학적 해석학은 이해의 역사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하버마스의 형

식주의적이고 보편주의적인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지만, 해석학적인 순환과정을 논의함에 있어 첫째 개방성을 전제하고 있고 또한 둘째로 해석자와 텍스트생산자 간의 의사소통 능력의 차별성을 간과함으로써 여전히 이상주의적인 편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 의사소통 합리성의 현실적 존재양식

(1) 지배관계내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의 재구성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합리성의 기획이 갖는 보편주의적, 이상주의적 편향을 지양하며 의사소통 합리성의 현실적 존재양식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배와 종속이라는 권력관계 속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의 위치를 검토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석학적 통찰이 의사소통 합리성의 현실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점은 의사소통 합리성이 위치하는 해석학적 순환과 변증법적 대화과정의 요건으로 ‘개방성’(openness)이 전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버마스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 합리성의 절차상 요건으로서 개방성을 전제하고 있다(1984, p.18). 개방성의 전제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의사소통 합리성의 한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권리관계 모델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의 근간이 되는 의사소통 능력을 재개념화하고, 둘째 권리관계 내지는 지배관계 속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의 위상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해석학에서 제한적으로만 규정된 이해의 역사성, 즉 전통으로서의 영향사는 권리에 기초한 지배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의미규정을 받게 된다. 즉 해석학에서의 전통은 이제 지배부문의 의사소통행위로, 해석학에서의 해석자의 지평과 해석과정은 이제 피지배부문의 의사소통 행위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권리관계 속에서 의사소통 행위는 즉각적으로 의사소통 참여자가 지니는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에 의해 규정받게 되어,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행위자의 대상을 보는 방식, 즉 이해지평은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것으로 기능하며, 피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행위자의 이해지평은 종속적이거나 주변적인 것으로 위치지워 진다.

해석학적 통찰에 의해 해석학적 순환과 이해의 역사성으로 한계지워진 의사소통 합리성은 이제 지배관계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재개념화에

서 한단계 더 한계지워진다. 먼저 이번 절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재구성한 다음, 다음 절에서 지배관계 속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의 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계급관계의 재생산 문제에 촛점을 맞추어 문화적 실천을 분석하기 위해 부르디외가 특유하게 개념화한 ‘자본’(capital)의 개념은 의사소통 능력의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에 있어 ‘자본’은 사회구성체에 있어 역사적으로 주어진 정향(dispositions) 내지는 능력(competence)으로서, 행위관행(Habitus) 내에 내재화된 상태로 존재하거나, 또는 물질적 상품(재화) 등과 같이 객관화된 상태로 존재하기도 한다(Bourdieu, 1977, pp. 171-197). 부르디외에 있어 자본의 주요한 두가지 형식(form)은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과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이다. 이와 같은 자본의 제 형식들간에는, 특히 문화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사이에는 서로 전환 가능성(convertibility)이 있으며, 자본을 소유한 주체는 자기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자본을 재생산하고 가능하면 그것을 증대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지식인이나 예술가 등 지배계급 내의 피지배분파(dominated fraction)는 교육체계를 통해 그들의 문화자본을, 타인들의 문화적 정향이나 능력과는 달리 정통한(legitimate)한 것으로 차별화한다(Garnham and Willams, 1986, pp. 124-127). 교육은 특정한 미학적 자질과 특정한 능력에 대한 자격기준(certifications)을 부여함으로써, 즉 피지배계급의 필요성의 문화(culture of necessity)와 대립하는 차별성의 문화(culture of distinction) 논리를 정당화 함으로써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교육 등을 통해 Habitus에 내면화된 특정의 자질과 능력은 계급 간에 차별화된 문화적 실천의 논리를 부여하고 이것은 결국 기존의 계급관계를 재강화시켜 주는 데 기여하게 된다.

권력관계 모델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하버마스가 이상적 대화상황의 기초로 제시하고 있는 “경험적 제 조건들하에서의 실제적 제약들과 상관없이 대화구성적 보편요소(dialogue constitutive universals)를 구사할 수 있는 이상적(ideal)인 화자의 능력”이 아니라, 지배관계를 재생산하고자 하거나 지배관계를 변화하고자 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이 된다.

(2) 지배관계내에서의 의사소통 합리성의 위상

그렇다면 두번째의 문제로 넘어가서, 이제 지배관계의 상황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의 위치와 존재양식은 어떠한가?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본고는 의사소통 과정을 지배와 변화 등 역동적인 요소를 내포하는 복합적인 사회적 과정으로 보는 데서 출발하고자 한다. 의사소통의 참여자는 단순히 이데올로기의 담지자가 아니라 의식적인 사회적 행위자(conscious actor)로 개념화된다.

여기서 ‘의식적’ 행위자라는 말은 두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하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의식하고 그 모순에 대해 투쟁하는 존재로서의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호작용과정에서 대안(alternative)에 대한 인식 및 그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서 합리적 의사표시를 포함하여 비합리적인 다양한 반응과 행위를 하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에서 다양한 반응과 행위는 하버마스가 합리적인 논증과정으로 환원시킨, 경험의 영역에서 동기화되는 다양한 행동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같은 전제를 공유하는 테르본의 이데올로기적 호명(interpellation)의 양식에 대한 논의(Therborn, 1980)를 재구성하여 피지배부문의 측면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를 다룰에 있어 논의의 축은, 분석적 목적에서지만, 몇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첫번째는 의사소통의 대상이 되면서 또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되는 담론의 차원이다. 하버마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론의 유형을 미학적 비판과 치료적 비판을 제외할 경우, 이론적 담론(theoretical discourse)과 실천적 담론(practical discourse)으로 나눈다. 이론적 담론은 진리여부, 존재상태에 대한 규정에 관한 담론이며, 실천적 담론은 행위규범에 대한 타당성과 관련되는 도덕적, 윤리적 담론이다.

테르본의 경우 이데올로기적 호명양식으로 첫째 존재상태(what exists)에 관한 호명, 둘째 선 내지 규범(what is good)에 관한 호명, 그리고 세번째로 변화가능성(what is possible)에 관한 호명으로 유형화한다(Therborn, 1980, p.18). 양자를 비교할 경우 테르본에 있어 존재상태에 관한 호명과 선에 관한 호명은 하버마스의 담론 유형과 유사하나, 테르본에 있어 변화가능성에 관한 호명은, 다음에 살펴보게 될, 대안의 실현을 위한 행위여부의 판단과 관련되는 차원이므로 담론의 차원으로서는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것처럼 이론적 담론과 실천적 담론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논의의 축은 대안(alternative)에 대한 인식여부에 관한 차원이다.

이것은 기존의 계급의식에 대한 논의에서 흔히 즉자적 존재와 대자적 존재로 다루어져 온 문제로서 현재의 모순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구조에 대해 의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세번째는 대안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차원으로서 종속(subjection)과 투쟁(struggle)의 행동적 차원과 관련된다. 여기서, 기존의 대부분의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쟁의 경우는 대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는 것이고, 종속의 경우는 대안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경우에 나타나지만, 대안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회의에서 종속이 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Therborn, 1980, p. 94). 즉 실현가능성에 대한 내적인 의식적 판단에 기초하여 형성된 동기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선택(choice)으로서 종속의 경우와, 단순히 무의식적으로 맹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종속의 경우는 구별되어야 한다.

〈표 3〉 의사소통 합리성의 위상(피지배부문)

대안에 대한 인식				
담론 차원	유		무	
	물리적	이론적 담론	적응	불가피성
전리·존재상태	투쟁	실천적 담론	대표성	경의
선·정의·규범			(두려움) 가능(투쟁)	(체념) 불가능(종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와 같은 논의의 축에 따라 나타나는 행위의 양식은 피지배부문의 측면에서 볼 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종속이 되는 경우는 대안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 담론의 차원에 따라 각각 적응(accommodation), 대표성(sense of representation)으로, 그리고 대안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는 담론의 차원에 따라 불가피성(sense of inevitability), 경의(deference)로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으로 상호작용에서의 투쟁은 물리적인 투쟁의 경우와 의사소통 차원에서의 투쟁의 차원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투쟁은 자신의 대안에 대한 정당화(legitimation)와 기존의 사회구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호명의 탈정당화(delegitimation)를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의 수행으로서 담론의 차원에 따라 이론적 담론과 실천적 담론으로 구분된다.

결국 의사소통 합리성의 위상은 대안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선택되는, 언어적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적 투쟁으로 규정된다. 이제 의사소통 합리성은 지배관계의 변화나 유지를 추구하는 정당화과정과 연관된다.

3. 의사소통 합리성의 현실적 가능성

지배관계 모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개방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즉 현실적으로 지배적인 권력의 행사에 의해 의사소통이 폐쇄적인 과정이 된다면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무력화되는가? 즉 상호작용의 결과는 항상 사회적으로 규정된 의사소통 능력 내지는 문화자본과 같은 규정에 의해 획일적으로 규정되거나 아니면 의사소통 이외의 영역에서만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는 의사소통 합리성의 현실적 가능성에 관한 문제이다.

본고는 이론적 담론의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이론적 담론의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탈경험주의적 과학철학(post-empirical philosophy of science), 특히 쿤(1970)의 패러다임의 구조변화에 대한 논의에서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담론의 상황과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상황은 일정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각기 지니고 있지만, 이론적 담론의 상황에서도 특정한 패러다임이 권력을 갖고 이론작업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새롭게 등장하거나 대항하는 패러다임의 이론은 권력관계 속에서 피지배부문의 위치에 머물게 된다는 점에서, 쿤도 지적하고 있듯이(1970, pp. 92-94), 이론적 담론의 상황도 실제적인 상호작용의 권력관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 담론의 상황과 그 과정은 본고에서 다룰 의사소통 합리성의 현실적 가능성의 겸토하는 데 유용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쿤의 과학적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에 대한 논의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제한받는 지배적 패러다임의 규정 속에서 합리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누적된 모순의 축적에 의해 도래되는 패러다임의 위기 단계에서 경쟁하는 패러다임들 중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것으로 정착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쿤이 말하는 과학혁명의 본질은, 기존의 비판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비합

리적이고 주관주의적이며 군중심리적 과정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작용하는 합리성 과정을 내포하는 것이다. 쿤의 의도는 합리적인 설득 및 논증의 형식을 비합리적인 설득 내지 강요의 형식으로부터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Bernstein, 1983, p. 53).

쿤은 이성이 가치(values)로서 기능하며 따라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합적으로 사람들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성이 적절히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집단내 각 개인을 동일한 결론에 이끌어 줄 ‘이론선택의 중립적 산술법’(neutral algorithm for theory-choice), 즉 체계적인 결정절차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1970, pp. 199–200). 이는 과학자 내지 과학적 절차에 요구되는 제 규준들(정확성, 일관성, 적용범위, 단순성, 풍부함)에 대해 각 개인마다 각기 달리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각기 달리 비중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쟁하는 이론들 중에서의 선택과 관련되는 판단이나 합리적 고려방식은 해당 과학자사회의 사회적 관행(social practices)에 의해 형성된다. 이는 이성사용(reasoning)이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쿤에 있어 이성이 가치로서 기능한다면, 이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요인에 의해 이론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Bernstein, 1983, p. 55). 이러한 점에 대해 쿤은 주관적인 것과 ‘판단가능한 것’(judgmental)을 구분하면서, 이론선택은 판단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론선택이 판단가능하다는 것은 경쟁하는 이론들이 ‘양립할 수 없고’(incompatible), ‘통역불가능’(incommensurable)하지만, ‘비교가능하고’(comparable), ‘논의가능하다’(discussable)는 것을 말한다(Bernstein, 1983, p. 86).

이론의 선택은 상상력, 해석, 대안에 대한 평가, 규준의 적용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는 판단가능한 활동이며 이와 같은 활동은 이성에 의해 뒷받침된다(Bernstein, 1983, p. 55).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나온 이론을 지지하며 제시된 복합적인 논증들에 대한 이성적 작용에 의한 평가들이 축적되면서 기존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과학자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도록 설득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론적 담론의 영역에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쿤의 논의는 패러다임의 역동적 변화과정 속에서 폐쇄성(특정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과 개방성(패러다임의 위기상황) 양자를 논의의 틀 속에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문의 논의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은,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패러다임의 위기상황에서 활성화되지만,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상황, 즉 폐쇄적 상황에서도 제한적이지만 잠재적으로 끊임없이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이 통역가능성(commensurability)에 관한 가정들을 포기한 것이 의사소통 합리성을 의문시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의사소통 합리성의 실제적, 실천적(practical)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IV. 맷 는 말

하버마스가 제시하고 있는 의사소통 합리성의 기획은 상호이해의 도달 지향,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상적인 대화상황과 그것의 이념적 요건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논증 과정을 통한 합리적인 합의의 도출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하버마스가 제시하고 있는 의사소통 합리성의 기획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해의 역사성을 주장하는 해석학, 의사소통 능력의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부르디외의 문화자본의 개념, 권력관계모델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의 위치지움, 그리고 개방성과 폐쇄성 속에서의 의사소통 합리성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문의 시사점 등에 대한 논의를 거치면서, 의사소통 합리성의 현실적 존재양식과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몇 가지 측면이 밝혀질 수 있었다.

첫째로 의사소통 합리성은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시적이고 순수한 형태의 언어적 과정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갖고 있는 이해의 역사성, 즉 지평 속에서 해석학적인 순환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가다마가 주장하듯이 의사소통과정에서의 합리성의 차원은 이상적인 대화상황에서와 같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규정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의사소통을 순수한 형식적인 논증과정으로 환원할 경우 의사소통과정을 엘리트주의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학에서 역사적으로 규정된 의사소통 합리성은 지배관계 모델 속에서 구체화된다.

두번째로 하버마스에 있어서 이상적인 것으로 규정되어온 의사소통 능력은 부르디외가 지적하듯이 사회적으로 지배관계를 재생산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사회적 능력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은 지배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능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교육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재생산된다.

세번째로 지배관계 모델 속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은 복합적인 인간의 행위 양식 중에서 합리적인 상호작용양식 중의 하나로서 규정되며 이러한 합리적인 의사소통 양식의 선택은 대안에 대한 인식 및 대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선택 속에 위치지워진다. 여기서 우리는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변증법적 과정을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쿤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논의에서 보듯 의사소통 합리성은 개방성과 폐쇄성 차원 속에서 위치지워진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기획과 가다미의 해석학적 반성이 개방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지배관계 모델 속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은 폐쇄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의 위상과 가능성을 모색하게 해준다. 해석학과 지배관계 모델을 거치면서 현실적 존재 양식이 모색된 의사소통 합리성은 쿤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에서 보듯 폐쇄적인 상황, 즉 지배관계 속에서도 잠재적으로 끊임없이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의사소통상황과 관련되는 개방성과 폐쇄성의 차원은 정치사회적인 제도와 연관된다.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이 일정하게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제도와 그것이 극도로 제한받는 파시스트적 사회구조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의 위상에 대한 고찰은 의사소통 합리성의 현실적 가능성을 들러싼 문제를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방성과 폐쇄성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의사소통 합리성은 이제 의사소통과 사회구조와의 관계에 대한 사회분석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제 까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합리성은 사회적인 규정 속에서 합리성과 비합리성, 확정성과 불확정성, 개방성과 폐쇄성, 지배와 종속 등의 변증법적 과정과 연관됨을 보았다. 이와 같이 상호이해의 도달지향이라는 규범적인 함의를 갖는 의사소통 합리성의 개념에서 벗어나고 또한 그것의 규범적 근거가 되는 의사소통 능력을 사회적 능력으로 확장하게 될 경우,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은 이제 지배관계 내에서의 정당화/탈정당화 과정에 대한 이론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Berger, J.
- 1983 'Review of Jürgen Habermas'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Telos*, 57, 194-205.
- Bernstein, R.J.
- 1983 *Beyond Objectivism and Relativism: Science, Hermeneutics and Praxi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ourdieu, P.
-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espi, F.
- 1987 'Social Action and the Ambivalence of Communication: A Critique of Habermas's Theory,'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4, 415-425.
- Ferrara, A.
- 1983 'A Critique of Habermas's Diskursethik,' *Telos*, 64, 45-74.
- Gadamer, H.-G.
- 1976 *Philosophical Hermeneu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1982 *Truth and Method*, N.Y.: Crossroad.
- Garnham, N. and R. Williams
- 1986 'Pierre Bourdieu and the Sociology of Culture: an Introduction,' in R. Collins et al.(eds.), *Media, Culture and Society: A Critical Reader*, London: Sage, pp.116-130.
- Giddens, A.
- 1982 'Labour and Interaction,' in J.B. Thompson and D. Held (eds.), *Habermas: Critical Debate*, Cambridge: The MIT Press, pp.149-161.
- Habermas, J.
- 1970 'Toward a Theory of Communicative Competence,' in H.P. Dreitzel (ed.), *Recent Sociology No. 2: Patterns of Communicative Behavior*, London: The Macmillan Ltd., pp.115-148.
- 1973a 'Wahrheitstheorien,' in H. Fahrenbach (ed.), *Wirklichkeit und Reflexion*, Pfullingen: Neske, pp.211-265.
- 1973b 'Labor and Interaction: Remarks on Hegel's Jena Philosophy of Mind,' in J. Habermas, *Theory and Practice*, Boston: Beacon Press, pp.142-169.
- 1977 'A Review of Gadamer's *Truth and Method*,' in F.R. Dallmayr and T. McCarthy (eds.), *Understanding and Social Inquiry*, NotreDame: Notre-Dame University Press, pp.335-365.
- 1979a 'The Public Sphere,' in A. Mattelart and S. Siegelaub (eds.), *Communication and Class Struggle Vol. 1*, N.Y.: International General, pp.198-201.

- 1979b 'What is Universal Pragmatics?' in J. Habermas,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Boston: Beacon Press, pp. 1-68.
- 1979c 'Historical Materialism and the Development of Normative Structure,' in J. Habermas,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Boston: Beacon Press, pp. 95-129.
- 1982 'A Reply of my Critics,' in J.B. Thompson and D. Held (eds.), *Habermas: Critical Debate*, Cambridge: The MIT Press, pp. 219-283.
- 1984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I: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Boston: Beacon Press.
- 1985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2: Lifeworld and System: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Boston: Beacon Press.
- 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Cambridge: The MIT Press.
- 1990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Cambridge: The MIT Press.
- Heidegger, M.
- 1962 *Being and Time*, N.Y.: Harper and Row.
- Heller, A.
- 1982 'Habermas and Marxism,' in J.B. Thompson and D. Held (eds.), *Habermas: Critical Debate*, Cambridge: The MIT Press, pp. 21-41.
- Hesse, M.
- 1982 'Science and Objectivity,' in J.B. Thompson and D. Held (eds.), *Habermas: Critical Debate*, Cambridge: The MIT Press, pp. 98-115.
- Kuhn, T.
-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Carthy, T.
- 1976 'A Theory of Communicative Competence,' in P. Connerton (ed.), *Critical Sociology*, Harmondsworth: Penguin Books, pp. 470-497.
- McCarthy, T.
- 1978 *The Critical Theory of Jürgen Habermas*, Mass.: Polity.
- Therborn, G.
- 1971 'Jürgen Habermas: A New Eclecticism,' *New Left Review*, 67, 69-83.
- Therborn, G.
- 1980 *The Ideology of Power and the Power of Ideology*, London: Verso.
- Thompson, J.B.
- 1981 *Critical Hermeneutics: A Study in the thought of Paul Ricoeur and Jürgen Haberma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pson, J.B.
- 1982 'Universal Pragmatics,' J.B. Thompson and D. Held (eds.), *Habermas:*

- Critical Debate*, Cambridge: The MIT Press, pp. 116-133.
- Thompson, J.B.
- 1984 'Rationality and Social Rationalization: An assessment of Habermas'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n J.B. Thompson, *Studies in the Theory of Ideology*, Cambridge: Polity Press, pp. 279-302.